

Robert Yarbrough 박사, 목회서신, 세션 14, 디도서 3장

© 2024 로버트 야브로(Robert Yarbrough) 및 테드 힐데브란트(Ted Hildebrandt)

목회 서신, 목회 지도자와 추종자들을 위한 사도적 교훈에 대해 강의하는 로버트 야브러 박사(Dr. Robert Yarbrough)입니다. 14회, 디도서 3장.

우리는 목회 지도자와 추종자들을 위한 사도적 지침인 목회 서신을 공부하면서 디도서의 마지막 강의에 이르렀습니다. 아마도 목회자들이 목회서신을 공부하는 것만큼 추종자들이 목회서신을 공부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디도서 3장을 보면 선을 행하기 위해 저장된 제목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목을 얻는 NIV에는 1장으로 돌아가는 제목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선한 것을 사랑하는 장로들을 세우십시오. 다음 제목은 선을 행하지 않는 사람들을 꾸짖는 것입니다. 다음 제목은 복음을 위하여 선한 일을 행하였고 이제는 선을 행하기 위하여 구원을 얻었느니라.

그리고 우리는 NIV가 선한 일을 행하는 것으로 번역한 Titus의 선한 행위에 대한 강조가 있다는 것을 이미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한 이전 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 엄청난 신학적 강조, 즉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강조와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강조를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제목 때문에 디도서가 주로 도덕주의적인 책이거나 고대의 일부 작가가 교회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삶의 방식을 알려주려고 했던 규칙 목록이나 코드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실제로 이것은 실제 상황을 다루는 매우 신학적이고 신학적으로 근거를 둔 일련의 훈계입니다. 아마도 세계의 모든 교회에서 5년, 10년, 15년에 걸쳐 활동한다면 아마도 모든 교회는 교회 안에서, 교회 옆에서, 교회와 관련하여 일어나는 세력, 사람들의 문제를 다루게 될 것입니다. 교회, 교회에 영향을 미치는 목회자. 누군가는 교회의 실천과 교리에 실제로 건강하지 못한 생각을 내놓을 것이고, 하나님을 안다고 공언하면서도 행위로는 그분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죄가 교회에 스며들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지역적으로 건전하게 확장될 뿐만 아니라, 교회가 확장되고 새로운 교회가 형성됨에 따라 교회에 필요한 리더십 팀을 갖게 되는 것을 위해 디도가 말하고 있는 종류의 일입니다. 1장은 지도자의 자격을 규정하고 있다.

2장은 매우 풍부하고 아름다운 신학적 기초에 기초하여 사람들의 경건과 교회에 속한 개별 인구 집단의 양육에 대한 방향을 제시합니다. 3. 그러므로 3장에서는 사람들에게 상기시키고 상기시켜 줍니다. 그리고 그것은 필수이기 때문에 빨간색으로 표시됩니다. 그것은 명령이다.

사람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고 불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할 준비를 하게 하라. 그리고 거기 헬라인들은 열심이 있어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준비가 되어 있느니라. 그리고 그는 예를 들었습니다.

아무도 비방하지 않으려면, 좋은 말이나 진실한 말이 없을 때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평화롭게 지내는 것이 좋은 일이고, 배려하는 것이 좋은 일이며, 모든 사람에게 항상 온화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여기서 선호하는 또 다른 번역이 있는데, 그것은 모든 사람을 고려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생각에 그가 여기서 말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느슨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항상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은 말로만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내 말은, 그것은 잘못된 번역이 아니지만, 내가 생각하지 않는 표현이고,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누구도 강인하거나 위압적인 성격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암시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신이 그들을 온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온유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은 자신이 될 수 있고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으로서는 어울리지 않는 뻔뻔스럽고 오만하고 위압적인 태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품위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뻔뻔하거나 오만하거나 위압적이지 마십시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당신의 존중에 관한 한, 그것은 풀이 피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는 모든 사회에서 볼 수 있는 증후군입니다. 그것은 인종차별로 비쳐질 수도 있고, 계급 우월함으로 비쳐질 수도 있고, 교육적 차이로 비쳐질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교육을 거의 받지 못해 엘리트를 비웃을 수도 있고, 아주 아주 똑똑해서 더 나은 지구를 만들고 있을 수도 있고, 환경과 함께 살고 싶어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양심 등이 있습니다.

그가 말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다른 사람을 폄하하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은 당신과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는 우리가 나을 것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3절에 보면 우리도 한때는 어리석고 불순종하고 속임을 당하고 온갖 정욕과 향락에 종노릇하였었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조건입니다.

거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모두가 그렇습니다. 단지 다른 형태를 취할 뿐입니다.

우리는 악의와 시기, 미움을 받고 서로 미워하며 살았습니다. 이제 바울은 특히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제국의 소수 인구로서 이것이 개인 수준에서 사실일 뿐만 아니라 다소의 사울이 들었던 날에 저는 추측할 것입니다. 스테반의 증언에 따르면 그들은 그를 향하여 이를 갈고 돌로 쳐죽였습니다. 나는 다소의 사울이 그곳에서 약간의 증오심을 느꼈고 그것은 한 동포를 향하여, 어쩌면 그와 같은 누군가를 향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그는 개인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한 수준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에서 멸시받는 소수였습니다. 그리고 요세푸스라는 사람의 글을 읽어보면 그는 때때로 로마 군대가 유대인들을 경멸하고 유대인들을 어떻게 모욕하고 조롱했으며 그들의 거룩한 것을 모독하고 조롱했는지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그들은 우상숭배자들이었고, 그들은 다신교자들이었고, 유대인과 이방인, 유대인과

로마인 사이에 악한 피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깊고 깊은 반감이 바로 이것이다.

그리고 바울은 우리 모두가 이것이 정상적인 삶의 일부인 세상에서 자랐다고 말합니다. 인생에서 좋은 부분은 아니지만, 세상 어디든 갈 수는 없고 그곳에서 매우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거기서는 이 사람들이 무엇을 싫어하는지, 누구를 싫어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과거로 돌아가면 사람들은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이런 편견을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4절 : 그러나 반대방향으로 가라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나타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시고 내가 거기 헬라인을 만난 것은 그 행한 일로 말미암지 아니함이라 정당성. 의로 말미암지 않고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한즉 의로 행함이라. 그러므로 그 번역은 우리가 행한 의로운 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나쁜 번역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그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음이라.

나는 단지 여러분이 거기에 있는 일이라는 단어를 보기를 바랐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단어는 디도서에 포함된 단어입니다.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거듭나야 합니다. 이는 거듭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영적 변화에 대한 비유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세례를 생각하게 하는 비유입니다. 그러나 세례는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하나님의 영적인 역사, 즉 사람을 깨끗하게 하는, 즉 거듭남의 씻음에 대한 표징과 상징과 인침일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신 성령으로 새롭게 된다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는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또 은혜라는 말이 있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로 영생의 소망을 가진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유대인 바울이 상속자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마다 그는 아브라함의 유산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창세기 3 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셨던 약속, 즉 뱀의 머리가 부서지리라는 약속까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자의 씨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과 구원받은 창조물이 나올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유산이며 성령께서 이것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어 주셨으니 이는 우리 곧 우리 유대인과 우리 이방인과 우리 그레데인과 우리 로마인과 우리 모두가 그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받아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는 우리로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약속의 상속자가 되어 영생의 확신과 영생의 소망을 갖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영생입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천국을 생각하지만 그리스도는 이미 부활하셨고, 다가올 시대는 이미 존재하므로 영생은 지금 삶의 질임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그 범위가 끝이 없다는 점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따라서 미래에는 그런 의미에서 영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미 존재하며, 이미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질을 나타냅니다. 이것이 유산의 일부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특히 신명기로 돌아가서 신명기의 삶의 사용법을 연구한다면 이스라엘에는 아주 많은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살다. 그리고 많은 약속이 있고 매력은 사는 것인데 그들도 이미 살고 있었고 가나안 족속도 살고 있었고 살아 있는 자도 다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분이 그들을 그와 언약을 맺은 삶의 차원, 모세가 마음에 할례를 받은 것으로 특징지은 삶의 차원, 그들이 주 그들의 하나님을 사랑했지만 불행하게도 종종 행하지 않았던 삶의 차원으로 부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명령을 받았지만 말하자면 마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마음을 굳혔습니다.

모세가 그토록 많이 이야기했던 바로 그 세대는 모두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들은 이 모든 약속과 확신을 갖고 있었지만, 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죽었다.

그들은 하나님을 그들의 마음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영생을 얻지 못했습니다. 모세가 그랬고, 여호수아가 그랬고, 갈렙이 그랬고 일부가 그랬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항했기 때문에 이러한 삶의 질, 즉 하나님이 그의 백성과 함께하시는 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소망을 가진 상속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때 약속하신 대로, 현재와 미래에도 약속하신 대로. 이제 내가 방금 말한 모든 것을 바울은 8절로 요약합니다. 이것은 미실한 말입니다.

이제 디도야, 이제부터 네가 이런 일을 강조하여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조심하여 선한 일에 힘쓰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런 일은 모든 사람에게 탁월하고 유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중생의 씻음, 새롭게 됨, 부어주심, 은혜에 의한 칭의에 관한 성경 전체를 실질적으로 포괄하는 이 영광스러운 신학적 비전에서 매우 직접적인 움직임을 볼 수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

하나님을 신뢰한 사람들이 이를 선한 일을 행하는 데 직접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이러한 것들을 강조하십시오. 제 말은,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화려하고 고상한 신학적 비전이 있고 며칠 후에 저는 뭔가를 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주류적이고 직접적인 일이며, 또한 매우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다. 육아하다 보면 가끔 오르락내리락할 때도 있지만 정말 잘 될 때도 있고, 시너지도 좋고, 케미스트리도 좋고, 아이들도 부모와의 관계에서 벗어나고, 그 관계를 표현하는 행동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들은 부모님에 대한 사랑을 인식하고, 부모님이 그들을 위해 마련해 주셨고, 부모님이 그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쩌면 집안이 바쁘고 그날 할 일이 많아서 때로는 아이들이 발을 끌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하고 싶어하지 않지만 때로는 아이들이 이 시대의 필요성에 대한 자신의 감각이 얼마나 정교한지, 그리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기 위해 일하려는 의지로 당신보다 앞서서 당신을 놀라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단지 관계에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풀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사자의 삶을 사는 기쁨을 배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고 있으며, 그것이 바로 그가

디도를 통해 나이 많은 남자와 여자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젊은 여성과 젊은 남성.

그분께서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부활, 중생, 그리스도 안의 새 생명에서부터 매우 특별한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는 방식에 이르기까지 직접적인 연결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일단 이것에 익숙해지면 좋은 일이 무엇인지 항상 말해 줄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습관이 되고 여러분의 삶은 봉사 행위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크레타 섬은 분명히 바울이 디도에게 편지하면서 그는 새로운 기독교 상황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우리에게는 기독교 유산과 같은 것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새로운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저는 이 강연에서 이것을 말하지 않았습시다.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스-로마 세계는 그들이 알고 있던 것보다 더 오래되고 매우 오래된 유산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수세기 전에는 그들이 특정한 방식으로 일을 했고, 문화적 분위기에는 종교가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는 로마 시민 종교의 대제사장이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종교, 숭배, 사원, 신, 여신 등 모두가 이러한 것들을 확인했지만 이들 종교 중 어느 것도 종교와 관련된 윤리가 없었습니다. 제 말은, 그 연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인데, 그 이유는 이들 종교 중 어느 것도 인도가 있는 경전과 관련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생각하는 철학자들이 있었고, 우리가 왜 여기에 있는지, 즐거움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모든 것 뒤에 있는 어떤 힘처럼 긍정해야 하는지, 축하 행사에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생각하는 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로 이 신들을 더 나은 농사를 위해 달래려고 살면 온갖 추론이 나올 수 있지만 신의 인도가 없었고, 종교적인 것과 도덕적인 것과는 연관이 없었습니다. 그러한 연결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이것이 바로 역사가들이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 특히 여성들이 유대교에 매력을 느꼈는지 우리에게 말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여자들이 유대교에 매력을 느낀 이유는 회당에서 여자들이 위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성은 남성과 떨어져 있어야 했지만 읽은 성경은 결혼을 거룩하게 하였으며, 성경에서는 여성을 남성이 사용하는 도구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들은 창조에 있어서 하나님의 선한 의도의 일부였으며, 여성을 보호하는 도덕도 있었습니다.

남자는 간음을 범하지 말아야 했고 죄, 성범죄는 양 당사자 모두에게 죄이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여자는 종종 남자 약탈의 희생자이고 유대인 공동체에서는 여자를 성적으로 보호했습니다. 그것은 종교의 일부였으며, 따라서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해야 하는 도덕성을 명시하는 십계명과 수십 가지 다른 명령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언약을 맺고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이런 일을 하고 이런 일을 하지 않는데 그것은 아브라함의 세계에도 필요했고, 모세의 세계에도 필요했습니다. 부패의 세계, 죄악의 세계, 착취의 세계, 노예의 세계, 강간의 세계, 유괴의 세계, 가진 자와 없는 자의 희생의 세계였습니다. . 무정부 상태의 세계에 사는 사람들을 위한 피난처는 스테로이드를 사용하는 거친 서부였고, 토라와 구약성서와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글쎄요, 그리스-로마 세계에 이르면 그리스-로마의 신과 여신, 종교는 도덕적 지침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고, 일반 은혜에 의해 사람들을 죽이는 것이 대단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경향이 있고, 우리가 성경에서 동의하는 많은 것들에 대한 법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도덕심이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에서는 도둑질이 좋지 않았지만 그것을 종교와 연관시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기 크레타 섬이 있습니다. 매우 그리스-로마적이며 명성이 높았던 곳입니다. 크레타 사람들은 거짓말쟁이로 명성이 높았습니다. 크레타 사람들에게 등을 돌리지 마십시오. 이것은 행동의 변화를 요구하는 종교이며,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은 혁명과 같을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내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임재에 의해 결정되어야 하고, 내가 가진 이 마음의 변화는 나의 모든 관계, 나의 모든 사업 거래에서 표현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 배우자와의 거래, 자녀와의 거래, 개인 생활.

내 말은, 그것은 포괄적으로 구현을 시작하기 시작하는 데에도 다년간의 프로젝트와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어떤 모습인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교회에 가든 안 가든 매우 이교도적인 방식으로 자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 전체와 당신을 영적으로 생산적인 삶으로 점점 더 이끌어 주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의해 깊이 조건화되지 않는 것은 쉽습니다.

합법적인 기독교 경험을 갖고 구원받는 것은 매우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매우 포괄적이지도, 깊이 들어가지도 않고, 양적인 면에서 당신을 강력하게 감동시키지도 못합니다. 저는 9살 때 신앙을 갖게 되었고, 10대 때 많은 파멸에서 저를 구해 주었지만, 20세가 될 때까지는 구조적으로 저를 감동시키지 못했습니다. 복음의 방향으로 한 발짝 내딛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한동안 잠자고 있다가 차츰 깨닫게 된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휴면 상태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와, 내 삶에는 실제로 그리스도의 주권에 복종하지 않는 많은 영역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자신이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갑자기 완전히 새로운 전망이 열리고 제게도 그렇습니다. 경우에 따라 때로는 삶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될 수도 있습니다.

나는 별목 방향으로 향하고 있었고, 사냥 방향으로 향하고 있었고, 하이킹과 북쪽 바위 여가 생활 방향으로 향하고 있었는데, 내 소명은 다른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좋은 일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내 집을 파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여 이 일을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자산을 청산하고 학교에 가기 위해 다른 지역으로 이사해야 했고, 그 다음에는 학교에 가기 위해 해외로 이사해야 했고, 당시에는 '글쎄, 간다'고는 말하지 않았습니니다. 이 일을 선한 일로 하는 것이 바로 내가 해야 할 일이었는데, 그것이 선한 일을 뜻하는 것이요, 크레타 사람들처럼 큰 체납으로 시작할 때에는 그들은 거의 아무것도 하지 않는 문화에 살고 있었습니다. 좋은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은 거꾸로 된 작품이었습니다. 정말 좋은 것들은 아마도 저항을 받았을 것이고, 일종의 승인을 받은 것은 일종의 그늘진 전형적인 것이었습니다. 마치 우리 문화가 마약 사용을 정말 좋아하는 것처럼 그것은 멋지지만

이성애자는 멋지지 않습니다. 다소 초조하고 어쩌면 선을 넘은 것, 심지어 불법적인 것도 좋은 일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여기서 일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것은 크레타였습니다. 거칠고 미쳤다.

선행은 혁명적이지만, 복음은 즉시 삶의 변화로 흘러들어 우리가 그런 환경에서 살고 있다면 갑자기 우리가 다른 방향으로 밀려드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갑자기 우리의 양심은 다른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을 알게 되고, 우리는 그러한 일의 일부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제가 벌목을 하던 시절이 기억납니다. 제가 처음으로 정말 좋은 직업을 갖게 된 것은 대기업이었습니다. 당시에는 US Plywood라고 불렀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Champion International이 되었고, 그때는 겨울이었는데 정말 추웠어요. 추웠고 우리는 밖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우리에게는 크러미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 크러미는 큰 승무원 버스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크러미에 충분히 가까이에서 작업하고 있다면 톱질을 그만뒀을 때 견기에 그리 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었기 때문에, 나무를 서로 가까이 떨어뜨릴 수 없었기 때문에 서로 죽이게 될 것이지만, 우리는 히터를 켜놓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버스에 올라 점심을 먹었고, 사람들은 Paul Harvey라는 라디오 아나운서의 말을 듣고 점심을 먹으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담배를 피우곤 했습니다.

사람들은 욕을 많이 하고 때로는 별로 좋은 농담도 아닌 농담을 하곤 했습니다. 한 무리의 남자들이 있는데 항상 밖에 앉아 있던 남자가 있었는데 어느 날 우리가 그곳에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밖에 눈밭에 앉아 점심을 먹고 있었는데 제 생각엔 기온이 10도에 눈이 많이 내린 것 같아요. 당신 허리에, John은 추운데 바깥에 있는데 왜 버스를 타지 않겠습니까? 나중에 나는 그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는 말했습니다. "거기에 있는 것은 내 영혼에 좋지 않습니다." 언어 때문에 그 당시 나는 그를 비웃었습니다. 나는 기독교 생활에서 그리 오래되지 않았고, 욕하는 일에 너무 많이 자랐기 때문에 욕하는 일에 매우 익숙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유죄를 느낀 누군가의 예였습니다.

나는 확신을 가져야 했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언어로 인해 확신을 느꼈고 또한 사람들이 자신의 기독교를 폄하하는 것을 개의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증인이 되고 싶었고 다른 사람들에게 증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를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 수행해야 한다고 느꼈던 선한 일이었고, 그것이 우리가 여기서 다루고 있는 종류의 일입니다. 이 모든 것이 지극히 아름답고 모든 사람에게 유익하니 오직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논쟁과 율법에 관한 다툼을 피하라. 이것을 초기의 디도 시대의 할레 집단과 연결 한다면, 이것은 다시 우리가 유대인의 영향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는 표시입니다.

논쟁은 수익성이 없고 쓸모가 없기 때문에 피하십시오. 이제 여러분이 긍정적이 되려고 노력하고,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하고, 다양한 연령층을 도우려고 노력하고, 그리스도를 확증하고, 우리를 위한 그분의 죽으심을 확증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새 생명을 다시 확인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확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분은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에게 한 번만 경고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 마태복음 18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생각합니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죄를 지으면 조용히 가서 합의하면 좋습니다.

그러다가 듣지 않거든 두세 사람을 데리고 가고, 듣지 않거든 교회에 데리고 가서 제명하라. 이것이 바로 Paul이 여기서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런 다음 두 번째로 경고하고 그들이 돌아 오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그 이후에는 그들과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이제 이것은 매우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가 피투성이의 세부 사항에 들어가고 싶어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아마도 그럴 필요도 없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에 그와 디도는 교회 상황에서 수년 동안 함께 해왔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았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그러한 사람들이 왜곡되고 죄가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정죄되었습니다.

그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티투스가 그들을 정죄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이 그들을 정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어긋나기로 결정했고 오늘날까지도 교회에서는 때때로 문제가 발생합니다. 지금 우리는 사람들이 새로운 도덕, 성경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제안하는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우리는 포용적이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하고 싶어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포용적이지 않다면, 당신은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한다는 비난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디도에게 사람들이 그런 회피적인 행동을 하도록 허용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정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신 일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해도 괜찮다고 결정한다면, 당신은 자신을 정죄하는 것입니다. 지적하는 사람들은, 보세요, 당신은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이 가증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말할 수 없고, 말할 것이지만, 당신이 우리를 정죄하고 있다고 정직하고 합법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아니요, 그들은 스스로를 정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단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주신 유산을 존중하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여러 가지 면에서 유산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성적 존중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에게 이성애 일부일처제의 유산을 주셨습니다.

대단한 일이고,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히브리서 13장은 모든 사람이 침소를 귀히 여기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유산에 속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디도 시대로 돌아가서 우리는 그 유산을 바꾸고 싶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정확히 무엇을 쫓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예수의 메시아 되심을 쫓고 있었습니까? 그들은 일부에서 도덕을 추구하고 있었습니까? 즉, 회당과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인들 사이에 스며드는 가능성이 너무 많았고, 이교 세계의 도덕성이 안타까운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을 반대하고 디도를 반대하고 저항한 이 사람들이 어떤 독성이 섞인 것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들에게는 경고가 필요했습니다. 수정이 필요했습니다.

그들은 책망을 받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취한 정확한 형태를 모르지만 그것은 일종의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확한 형태를 안다면 이 모든 것을 단 하나로 제한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 일종의 옴니버스 법안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에서 사람을 분리시키는 것이 무엇이든, 계속 고집한다면 두 번째로 경고하십시오. 그 후에는 그 사람이 더 이상 교회의 성찬을 받는 교인이 아니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기독교인이 되기 위한 근본적인 것을 계속해서 무시하면서 그들이 기독교인인 것처럼 행동하지 마십시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그들이 청바지를 입었다고 해서 여러분도 청바지를 입고 교회에 가면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기독교 신앙이나 실천에 대한 중심적인 공격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부어졌다고 말하며, 부어진다는 동사는 오순절에 인용된 요엘서에 나옵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부어진다.

그것은 엄청난 유출이고, 부사는 그 풍요로움의 그림을 관대하게 또는 풍성하게 증대시킵니다. 바울은 성령의 풍성한 흐름이 개인에게 임하여 몸에 임하는 것을 상상하며, 로마서 5장 5절에서 성령이 우리 마음에 부어진다고 말할 때 비슷한 단어로 동일한 이미지를 사용합니다. 세계 교회에서 은사주의 영향력이 있는 시대에 생각은 여기서 영적 경험의 감정적 향상으로 바뀔 수 있으며, 그것은 부분적으로 사실일 수 있습니다. 1세기의 맥락에서 우리는 사람들의 감정 상태를 알지 못하지만 아마도 이것의 일부는 역사적으로 적대적인 당사자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상호 존중, 자선, 공동 봉사의 기쁨을 찾는 기쁨에 대한 언급일 것입니다.

나는 여기에서 내가 수단에 있을 때 보았던 아랍 기독교인들과 박해받는 수단인들과 함께 거짓 없이 신이 가능하게 하여 서로를 받아들이고 나란히 예배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심지어 이슬람교에서 개종하여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도 있었고, 그들은 사회에 나온 아프리카 흑인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으며, 아랍계 사람들이 수세기 동안 그들을 죽이고 노예로 삼았기 때문에 그들을 미워했으며, 문화적으로 흑인을 무시했습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은 문화적 관점에서 볼 때 단지 노예가 될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사람들은 함께 모였고 오늘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는 메시아닉 유대인과 팔레스타인인을 찾을 수 있거나 미국에서 백인과 흑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로 함께 일하거나 르완다와 같은 부족 계통의 기독교인과 같은 곳에서 20여 년, 거의 30년 전에 부족 분쟁으로 인해 백만 명 중 상당수가 주로 마체테와 창 등으로 살해당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고향에서 서로 죽이는 사람들을 모으십니다.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치유의 임재라는 실재로 연합되어 있음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잊지 마세요, 바울은 유대인입니다. 디도는 이방인이다.

두 사람이 함께 일하는 것조차도 유대인이 아닌 새로운 크레타 기독교인들에게는 모순이 될 것입니다. 그들은 바울이 그곳에 있었고 지금은 글을 쓰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분은 유대인이면서 이방인인데, 교회 안에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다가올 시대의 가장 큰 징조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나는 감정적인 행복감에 만족합니다. 그러나 나는 감정적인 인종차별주의자, 즉 예수에 대해 열광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별로 자비를 베풀지 않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들이 풍성한 찬양 시간을 가졌을 것이라고 확신하지만, 쏟아져 나오는 가장 큰 표징은 감정적일 것 같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세계는 전쟁 중이고 우리는 살해를 가져오는 최전선에 있다는 인식과 서로에 대한 존중에서 그 감정이 커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문화적 경계를 넘어서는 기독교에 실제로 관여할 때, 당신은 항상 그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러나 당신은 또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리를

놓으시는지 항상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좋아하지 않지만 유대감과 신뢰, 상호 수용을 갖고 있는 다른 민족을 신뢰하는 것은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그리고 그들은 당신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이 속한 그룹의 특정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당합니다. 왜 그 사람을 믿나요? 그 사람은 미국인이건 백인이건 뭐든지 간에요.

그러면 미국 사람들은 왜 그 사람들과 함께 그 곳에 가나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을 믿을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 주변에 있는 것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폴에게는 가장 큰 일이었습니다. 복음의 현실. 에베소서 2장을 읽어보면 그분께서 두 사람을 하나로 만드신 우리의 화평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 세계와 유대세계를 인간에 비유하십니다. 그리고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화해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십자가가 한 일, 속죄의 사회적 차원입니다.

역사적 적대감이 무엇이든, 신자들은 하나님의 치유의 임재라는 현실로 연합되어 있음을 발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마리아인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하셨듯이, 예수님도 유대 갈릴리 사람이셨습니다. 그분은 사마리아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루살렘에 대한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울었고 예루살렘이 그를 죽였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 달린 강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위해 용서를 구하셨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을 죽이는 것에서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이 모든 예에서 우리는 디도와 그레데의 다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 대한 무관심, 다른 사람들에 대한 혐오, 다른 사람들에 대한 혐오에서 벗어날 가능성을 봅니다.

크레타인들은 그들 자신이 인정한 바에 따르면 예쁘고 우리와 거래할 때 상당히 범죄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꽤 마피아 같았어요. 그들은 사람들을 화해시키고, 사람들이 교제의 기쁨을 깨닫고, 함께 일하는 기쁨을 깨닫도록 돕는 복음 선포로 나아갈 수 있으며, 그들이 하는 신앙 고백으로 인해 행하는 선한 일을 통해 자신의 삶을 개선하고 다른 사람들의 삶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이는 최종 발언으로 이어집니다. 바울은 내가 아데미나 두기고를 우리에게 보내자마자 바울은 거기서 뭔가를 하고 설교하고 교회를 계획하고 여행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수행원 두 명을 크레타 섬의 티투스에게 보낼 예정입니다.

내가 그렇게 하는 동안, 내가 그곳에서 겨울을 보내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당신은 니코폴리스로 나에게 오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는 Titus가 거기에 있기를 원합니다. 가을철에 들어서자 그들은 너무 위험해서 더 이상 배를 타고 지중해로 여행하지 않았습니다.

폭풍은 예측할 수 없었고 보트는 항해에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 제노스와 아폴로스가 가는 길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십시오. 아무래도 그들은 지나가다가 크레타 섬에 들를 예정인 것 같습니다.

그들이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이것이 당시의 선교 사업 방식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나타나곤 했습니다. 그곳의 교회에서 모금을 한 이유 중 하나는 교회 일꾼들에게 식량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돈을 송금하거나 전화를 걸 수 없었습니다. 전화나 그런 것. 그들은 나타나서 필요한 모든 것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돈이 필요했습니다.

이는 '주다', '보트 표를 사다', '필요한 돈을 주다', '먹여주고, 입혀준다' 등의 약칭입니다. 우리 국민은 선행에 헌신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그가 마지막으로 하는 말은 이것이다.

순서대로, 최종 발언만 기재되어 있습니다. 시작 부분을 제외한 다른 모든 제목에는 내용이 있고 내용도 훌륭했지만 여기에도 내용을 넣을 수도 있었습니다. 마지막 발언, 좋은 작품입니다.

긴급한 필요 사항을 충족하고 비생산적인 삶을 살지 않기 위해. 나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당신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이들에게 문안하십시오.

은혜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그것은 여러분 모두에게 복수형입니다. 이제 저는 그 마지막 구절에 대해 논평하고 싶습니다.

디트리히 본회퍼(Dietrich Bonhoeffer)는 그리스도인의 존재를 설명하는 Life Together라는 책을 썼습니다. Gemeinsames Leben, 독일어로 되어 있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다른 신자들과 함께하는 삶, 가족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의 가족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삶.

공동체 차원은 예수와 그의 추종자들 사이에서 강력했습니다. 그들은 하나의 집단이었고, 신자들이 모든 것을 공유했던 사도행전의 복음 신앙 초기에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여기에는 물질적인 것도 포함되어 있었지만 영적인 것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것은 사도들의 설교와 성찬식에서 빵을 나누는 일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오순절 이후 약 30년 동안 바울이 이 서신을 완성하면서 이러한 공동체 패턴은 계속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에 그는 디도와 그레데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신념과 헌신을 공유하는 바오로와 다른 사람들의 안부를 전합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문안하라고 그가 말할 때, 그는 바울이 확언하고 디도가 옹호하고 있는 사도적 신앙에 공감하는 사람들에 대한 특별한 애정을 표현합니다. 한 주석가는 이러한 입장을 공유하지 않고 자신의 죄 때문에 교회를 떠난 사람들도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레데의 사회적 현실, 인간 본성,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타락한 세상의 저항은 항상 조화로운 공동체 관계와 생산적인 신앙 표현을 좌절시키려고 공모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왕국 존재의 열쇠로 마무리합니다. 왕국 존재의 열쇠는 은혜이다. 은혜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디도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하나님과 구주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섬기는 모든 사람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복수형으로의 이러한 전환은 바울이 그 편지가 전체 교회에 읽혀질 것이라는 것을 알았음을 의미할 수도 있고, 목사의 마음으로 쓰는 동시에 그가 사회 집단에게 쓰고 있다는 것을 단순히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는 단지 고립된 사상가에게만 글을 쓴 것이 아니었습니다. 참된 목자, 즉 아랫목 자는 양 떼와 하나입니다.

그리고 저는 디도가 진정한 목자였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의 은혜에 대한 선언은 현존하는 모든 서신의 끝 부분이나 끝 부분에 나옵니다. 많은 사본에는 마지막 단어로 아멘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최고의 증인이 아멘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바울과 디도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디도에게 복음 은혜의 중요성과 장엄함을 가르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는 이미 편지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는 것입니다. 이 은혜는 그들이 이 고귀한 유산의 상속자가 되도록 의롭게 해줍니다. 은혜는 로마 제국 전역에 걸쳐 신자들을 연결하는 은혜가 직면한 어려운 일에서 디도를 지탱할 것입니다.

크레타는 네트워크, 즉 확장되는 교회와 회중 네트워크의 일부일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약속이 펼쳐지고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 은혜는 세계 곳곳에서 복음 메시지를 받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그 은혜가 너무 강해서 제가 2022년에 말씀드리고 다시 Gordon-Conwell에 있는 세계 기독교 세계 연구 센터의 통계에 따르면 우리는 오늘날 세계에서 개신교에 대해 이야기하면 다음과 같은 상태입니다. 이것은 단지 내 머릿속에 맴돌고 있는 숫자일 뿐이며, 북미에 있는 전 세계 개신교인의 비율은 약 10%입니다.

그리고 유럽의 개신교인 비율은 전 세계 12~13% 정도입니다. 기독교는 백인의 종교라는 말을 들어보셨겠지만 사실은 이미 1960년대에 기독교가 세계적으로 팽창했기 때문에 서구 사상가들이 이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60년대에는 세계 기독교인 인구의 대다수가 백인이 아니었습니다. 더 긴 흰색. 그래서 현재 세계 기독교인의 18%가 아시아에 있습니다.

전 세계 개신교인의 또 다른 18%는 남아메리카에 있습니다. 전 세계 개신교의 경우 10%가 북미에 있고 44%가 아프리카에 있습니다. 복음의 흐름은 이전의 요새에서 멀어졌습니다.

우리가 개신교라고 부르는 종교의 시작인 종교개혁이 있었습니다. 그 종교개혁은 독일에서 일어났고, 종교개혁은 유럽적 현상이었으며 그 다음에는 북미적 현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선교 운동이 일어나서 복음이 남미와 아프리카와 아시아로 전파된 것은 종교 개혁 교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세대에 걸쳐 많은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톨릭교인들도 세계 여러 지역에 복음을 전하거나 가톨릭교를 전하고 있었는데, 이는 개신교인들이 하려는 일을 뒷받침하는 효과를 냈습니다. 그러나 20세기가 되어서야 누구도 예측할 수 없었고 처음에는 누구도 믿을 수 없었던 폭발이 시작되었습니다.

1950년에 중국은 약 100년 동안 그곳에서 거의 아무것도 보여주지 못한 채 그곳에 머물렀던 모든 선교사들을 추방했습니다. 100년 후에는 아마도 50만 명의 그리스도인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인들은 그들을 쌀 기독교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은 단지 음식을 얻기 위해 선교사들과 함께 있었다고 그들은 말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역사상 가장 심한 박해 중 하나는 1950년부터 1980년까지 중국 공산당 정권 하에서 일어났습니다. 1980년에 저는 신학 공부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고 세상은 정치적으로 변하고 있었고 중국은 개방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보고하기 시작했고, 현재 중국에는 많은 기독교인이 있습니다. 당시 보고에 따르면 현재 중국에는 1천만, 2천만, 3천만, 5천만 명의 기독교인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글썄, 당신이 50만 명에서 1천만 명, 2천만 명, 3천만 명 또는 그 이상으로 늘어나더라도 박해 속에서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비슷한 일이 아프리카, 아시아, 더 넓게는 남미에서도 일어났습니다. 세속적인 시대에 서구에서는 우리가 기술적으로 발전할 것이기 때문에 점점 덜 종교적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더 똑똑해질 것입니다. 우리는 종교가 전쟁과 문제의 원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종교를 없애면 더 나은 세상을 갖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지난 반세기 동안 세상은 점점 더 종교적으로 변해갔습니다.

부정적인 측면에서 이것은 종종 더 많은 죽음과 더 많은 전쟁을 초래했으며 특히 기독교에 가혹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전 강의에서 말했듯이 세계 기독교 연구 센터에서는 연간 하루에 대략 247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초와 10년 기초는 그들의 기독교 신앙 때문에 죽임을 당합니다. 일년에 90,000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기독교는 엄청난 속도로 확장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모든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그것이 어디로 이어질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기독교인으로 등록하고 있는 사람들 중 몇 퍼센트가 기독교인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나는 우리가 디도서에서 발견한 것과 같은 문제들이 문제가 될 것이며 전 세계 교회에도 문제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있을 것입니다.

떨어져 나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그들은 독일인들이 Scheinchristen 이라고 부르는, 겉모습만 기독교인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교회는 앞으로 놀라운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또한 지옥의 문이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임을 압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 말씀을 하신 이후로 그것은 사실이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막을 수 없습니다. 예측할 수는 없지만 좌절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창세기 3장 15절과 창세기 12장, 그리고 인류 역사의 다른 모든 교차로와 그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역사의 교차로와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역 이래로 사실이었습니다.

그 모든 교차로에서 그것은 사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업은 반대를 받아 왔으며 어느 시점에든 바로 여기서 모든 것이 끝날 것처럼 보였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약속의 챔피언이 체포되어 조롱을 당하고 매를 맞고 고문을 당하고 영혼을 잃었을 때 더욱 그렇습니다.

나는 마귀가 박수를 쳤고 분명히 예수님의 대적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일을 끝냈으니 이 일이 확실히 이루어지도록 무덤 옆에 파수꾼을 둘 것입니다. 하지만 뭔가? 그는 일어났고 상황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디도서가 우리에게 권면하는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을 격려하고 믿고 신뢰하며 선한 일이 풍성하고 그의 은혜로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돌리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목회 서신, 목회 지도자와 추종자들을 위한 사도적 교훈에 대해 강의하는 로버트 야브러 박사(Dr. Robert Yarbrough)입니다. 14회, 디도서 3장.